

2014. 8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

대전 MBC

2014년 8월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

방송사명 : 대전문화방송

1. 회의개최

| 일 시 | 장 소 | 참석인원 수 | | 비 고 |
|------------|---------------|--------|-----|-----|
| | | 위 원 | 방송사 | |
| 2014.8.26. | 대전MBC 대회의실 | 10/10 | 8 | |

- 시청자위원 불참자(명) 명단 : 전체 참석
- 방송사 주요참석자 명단: 김창옥 사장, 김미리 경영기술국장, 오승용 편성제작국장, 최혁재 보도국장, 서영석 사업국장, 차태헌 방송기술센터장, 신원식 창사50주년 기획단장, 우경수 경영심의부장

2. 심의결과 및 조치현황

가.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건수)

| 방송 편성 | 방송프로그램 | | | | | 자체 심의규정 | 합계 |
|----------|--------|----|----------------|----|----|------------|----|
| | 보도 | 교양 | 연예·오락 (스포츠) | 기타 | 소계 | | |
| 1 | 6 | 9 | - | 3 | 19 | - | 19 |

나. 사업자 반영(건수)

| 구 분 | 수 용 | 의견참고 | 반 론 | 계 |
|-----|-----|------|-----|----|
| 건 수 | 9 | 10 | - | 19 |

다. 의견제시(시정요구)에 대한 조치내용

| 구분 | 의견제시(시정요구)내용 | 조치내용 | 제시 월 |
|----|----------------------------------|-------------------------------|------|
| 계 | 10건 | 10건 | 7월 |
| 교양 | 창사 50주년 관련 프로그램 PR | 창사 50주년 관련 특집 프로그램 홍보 | 7월 |
| 교양 | 라디오 프로그램 홍보 노력 | 라디오 프로그램 자체 홍보 | 7월 |
| 보도 | 보도 뉴스 어려운 용어 피하도록 | 한자어, 어려운 용어 풀어 사용 | 7월 |
| 보도 | 기사 내용과 화면 영상 부합되도록 | 화면 영상 기사 내용과 일치되도록 함 | 7월 |
| 보도 | 서해 격렬비열도 조명 필요 | 서해 격렬비열도 집중 취재 | 7월 |
| 교양 | 건강 프로그램 시청자들에게 내용과 맞는 적절한 자료 제공 | 건강 프로그램 시청각자료 시청자들에게 맞는 자료 제공 | 7월 |
| 보도 | 집중취재라는 타이틀로 소개되는 뉴스는 심층성 있게 다루도록 | 집중취재 뉴스는 심층취재를 함 | 7월 |
| 기타 | 홈페이지 개선 사용자들의 만족도 높히게 | 홈페이지 전면개선으로 사용자들이 사용하기 좋게 함 | 7월 |
| 보도 | 뉴스 소개되는 건강 관련 사업체 PR 안 되게 주의 | 뉴스에 소개된 건강관련 사업체 익명 처리 | 7월 |
| 기타 | 시사 프로그램 방송 후 피드백 소개 | 시사 프로그램 방송 후 상황 변화 소개 | 7월 |

라. 시청자 권익보호와 침해구제

| 요 청 내 용 | 조 치 내 용 | 조치일자 | 비고 |
|---------|---------|------|----|
| | 해당사항 없음 | | |

마. 시청자평가원 선임

| 성 명 | 생년월일 | 전·현직 | 변동사유 |
|-----|------|---------|------|
| | | 해당사항 없음 | |

3. 기타사항

가. 시청자위원회 관련 공개 청구

| 요청자(단체) | 공개내용 | 공개방법 |
|---------|---------|------|
| | 해당사항 없음 | |

나. 시청자위원 변동사항

| 구분 | 성명 | 전·현직 | 추천단체 | 추천부분 | 변동사유 |
|------|-----|-------------------------------------|------------------|-------------|----------------|
| 위원장 | 오덕성 | 충남대 부총장 세계과학도시연합사무총장 | 한국도시 행정학회 | 과학기술단체 | 위촉 |
| 부위원장 | 김학선 | 전 대전MBC 편성국장 | 대전충남 아나운서협회 | 언론단체 | 위촉 |
| 위원 | 장백기 | 세종종합사회복지관장 | 한국청소년 진흥재단 | 청소년단체 | 위촉 |
| 위원 | 성정모 | 변호사 | 대전지방 변호사회 | 변호사단체 | 위촉 |
| 위원 | 박희원 | 대전충남 경영자총협회장 | 대전상공회의소 | 경제단체 | 위원장해촉 위원 유임 |
| 위원 | 한찬희 | 전 세계인삼엑스포 사무총장 현 (재)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감사 | 백제문화제 추진위원회 | 문화단체 | 위원 유임 |
| 위원 | 김명수 | 전 표준과학연구원장 현 표준과학연구원 연구위원 | (사)대덕클럽 | 과학기술단체 | 위원 유임 |
| 위원 | 유덕순 | 전 대전여성인력개발센터 관장 현 대전YWCA 사무총장 | 대전YWCA | 소비자보호 단체 | 위원 유임 |
| 위원 | 김형주 | 배재대 연극영화학과 교수 | 한국영화 교육학회 | 문화단체 | 위원 유임 |
| 위원 | 송인덕 | 전 방송통신위원회 사무관 현 중부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 사이버커뮤니케 이션 학회 | 언론단체 | 위원 유임 |

의견제시 및 시정요구에 대한 답변 (8월)

| 구분 | 의견제시(시정요구)내용 | 답변내용 | 비 고 | | |
|----|---|---|-----|----|----|
| | | | 수용 | 참고 | 반론 |
| 교양 | <p>이번 허참의 토크&조이에서는 동티모르에서 유소년축구팀을 조직해 세계를 재패한 김신환 감독의 삶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졌다(8월 9일). 김신환 감독의 이야기는 이미 영화<맨발의 꿈>으로도 만들어졌었는데, 이번엔 김감독이 직접 출연하여 그의 드라마틱한 삶을 직접들을 수 있는 시간이었다. 김감독이 이끌고 있는 선수팀들의 이야기와 인터뷰들이 자료영상으로 나와 흥미를 더해주었고, 영화<맨발의 꿈>의 영상들을 넣어 재미를 더하였다. 진행자들의 유쾌한 질문과 배경음악은 김감독의 이야기에 잘 동화되어 방송을 더욱 매끄럽게 진행될 수 있게 도와주었다고 판단된다.</p> <p>또한 동티모르에서 김신환 감독에게 축구를 배운 학생들이 한국의 유학생으로 스튜디오에 함께 출연하였다. 이들이 말하는 김신환 감독의 모습 역시 인간적이고 감동적이며서 시청자의 마음까지 뭉클하게 해주는 시간이었다(오덕성).</p> | <p>좋은 자료화면은 프로그램의 내용의 양념일뿐 아니라 흥미유발과 진행에 도움을 주는 필수요소이기도하다. 제작사의 협조를 얻어 이번에 사용한 영화 영상은 <김신환>이라는 인물을 소개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p> | ○ | | |
| 교양 | <p>이번 '전국이 보인다' 방송에서는 올 여름 청정해역에서 바다내음이 가득한 기장시장 명물기행과 무더운 여름 더위를 한방에 식혀줄 이색빙수, 귀농인들의 이야기 흙에 살리라 등 먹거리 놀거리, 즐길거리를 모두 소개해주는 시간이었다(8월2일). 특히 요번 방송에서는 여름 피서철을 맞아 피서객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주었다.</p> <p>총 7개의 주제로 이루어진 이번 방송에서는 다양한 영상과 리포터들의 소개로 진행되었는데 생생한 현장과 꾸밈없는 지역주민들과 인터뷰를 보여주어 시청자들 역시 어색함 없이 편안하게 시청할 수 있었다. 또한 남녀노소들이 다함께 시청할 수 있도록 각 연령대에 맞는 주제들을 선정하여 시청자들의 관심을 유도해내어 주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 각 주제의 영상이 끝날 때 마다 등장하는 진행자는 주목할 만한 요점만 끄집어내어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해주어 더욱 이해도를 높여주었다고 판단된다. 또한 장소가 스튜디오나 지정된 공간이 아닌 갤러리 등에서 진행되어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자아낸다(오덕성).</p> | <p><전국이 보인다>는 진행자가 스튜디오가 아닌 갤러리등의 산뜻하고 화사한 공간에서 진행한다는 특색을 살려나가는 프로그램이다. 기존의 스튜디오에서 벗어나 진행자도 한결 여유로운 마음으로 제작에 임하고 있고, 제작진도 이를 잘 이해하고 있어 보다 나은 장소 물색에 항상 고민하고 있다.</p> | ○ | | |

| | | | | | |
|----|---|---|--|---|--|
| 교양 | <p>이번 주 건강플러스는 건망증, 저신장과 성조숙증에 대하여 방송을 하였다(8월16일). 저신장과 성조숙증에 관해서는 전문의가 직접 스튜디오에 나와 사회자의 질문에 대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시청자들이 실제 전문의와 문진을 받는 느낌을 주었다. 사회자의 질문은 실제 시청자들이 궁금하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로 적절하였으며, 친절한 전문의의 설명과 적절한 자료화면은 시청자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저신장과 성조숙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여러 질병들을 나열하였는데 그러한 질병들의 병명만 표현하고 있지, 정작 증상을 설명하지 않은 대목이 보여 다음 방송에서 참고 해주었으면 좋겠다(박희원).</p> | <p>관련된 질환과 증상 설명을 보다 자세히 진행하여 시청자의 궁금증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p> | | ○ | |
| 기타 | <p>대전MBC 프로그램을 시간 여건상 주로 모바일 홈페이지에서 vod 서비스로 다시 보기를 자주하는 편이다. 이번에 대전 mbc 모바일을 접속해보았다. 이전 홈페이지에 비해 보기 쉽고 간략하며 심플하게 새롭게 단장하였다. 특히 다시보기 화질 부분에서 놀라울 정도로 화질이 개선되어 시청하는데 즐거움이 있을 정도였다. 요즘 추세에 발맞추어 발 빠르게 대처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앞으로도 대전MBC의 변화하는 모습을 기대해본다(박희원)</p> | <p>홈페이지 전면 개편으로 인해 네티즌들의 홈페이지 접속률이 좋아졌다. 이에 뉴스와 프로그램 제작 등에 일반 시민들도 참여할 수 있게 SNS 활용의 문도 열어 놓고 있다.</p> | | ○ | |
| 편성 | <p>허참 씨가 메인MC를 맡아 진행하고 있는 ‘허참의 토크 앤 조이’는 대중들에게 친숙하고 익숙한 허참 씨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 편안하고 보기 좋았으나, 방송의 방영시간대가 토요일 이른 오전이다 보니 시간 맞춰 챙겨보기가 쉽지가 않다는 단점이 있다(성정모).</p> | <p>지역 지상파방송뿐만 아니라 중앙의 지상파방송과도 경쟁을 하는 입장이어서 시청자들과 편하게 접할 수 있는 시간대를 찾아 토요일 오전시간대로 편성을 하게 되었다. 편성시간대는 프로그램 개편에 맞추어 논의를 할 예정이다.</p> | | ○ | |
| 보도 | <p>8시 뉴스데스크에서, 지역의 현황과 문제점, 사건과 사고를 다루어 보도하는 것은 좋지만, 시간에 쫓겨 급하게 마무리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된다. 편성의 문제인지는 모르겠으나 적절한 시간 배분이 이루어지지 않는 고질적인 문제점은 나아지지 않고 있어 안타깝다. 조금만 더 신경을 써서 적절히 시간배분을 잘해, 부드럽고 매끄럽게 중앙방송과 자연스럽게 바통이 터치되어진다면 뉴스를 시청하는 시청자들도 좋아할 것이라 여겨진다(성정모).</p> | <p>서울 뉴스 진행 큐시트가 종종 변경되는 경우가 많아 지역 뉴스 이후 서울로의 다시 연결하는 부분이 매끄럽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다. 앞으로 뉴스 진행에 만전을 기해 자연스럽게 뉴스가 이어지도록 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겠다.</p> | | ○ | |

| | | | | | |
|-----------|---|---|--|---|--|
| <p>교양</p> | <p>대전MBC가 가장 시급하게 시정해 나가야 하는 점은, 자연스럽게 시청자들의 공감도 얻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부재라 생각하며, 이러한 프로그램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아쉬움으로 다가온다. TJB의 <화통>과 지역케이블 방송인 CMB의 <표진인 닥터 24시>를 일례로 들어본다면, 표진인 닥터 24시는 지역 방송을 시청하는 시청자 즉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의학적 상식을 전달해 준다는 점이 좋았고, '화통'은 명사들을 초대하여 명사들의 삶과 노하우 및 진솔한 이야기를 전달함으로써, 그 이야기에 공감을 형성하고 방청객(시청하는 시청자들 포함)들과 소통하는데 있어서는 더할 나위 없이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출현하는 명사들이 일부 직업에만 치우쳐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을 초대하여 강연이 아닌, 편안히 이야기를 주고받는 형식을 취하다 보니 방청객 및 시청자도 부담 없이 몰입하게 되는 것을 볼 때, 앞으로 대전MBC만의 독자적이고 창의적인 교양프로그램을 제작한다면 시청자들의 공감뿐만 아니라 참여 정도는 지금보다 더 좋아질 것으로 본다 (성정모).</p> | <p>시청자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같이 호흡하는 프로그램의 제작은 저희의 과제이기도하다. <가요베스트>나 특집 프로그램으로 현장에서 시청자와 만나는 시간을 갖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보다 시청자와 밀접히 만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에 힘쓰겠다.</p> | | ○ | |
| <p>교양</p> | <p>8월 15일 시사플러스 '서산축협 의 꺼지지 않는 의혹' 편에서는 조합장 비리로 인한 노사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서산축협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었다. 비단 사업주 및 임직원의 비리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노사갈등 및 노사분쟁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금융협동조합에서의 임직원 비리나 노사분쟁은 그 성격을 달리하고 있다. 협동조합은 경제적으로 약소한 처지에 있는 소비자, 농민, 중소기업자들이 사업의 개선 및 권익 옹호 등을 위하여 조직한 협력단체로 조합원들이 주인이다. 또한 협동조합의 임직원은 주인인 조합원들에 의해 선임된 자로서 조합원을 대리하여 이들의 권익 옹호에 힘써야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이번 서산축협의 분쟁을 살펴보면 그 어느 곳에도 조합원들을 생각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조합장의 직위를 이용한 권한 남용과 노조의 단체협약 이행요구, 사내 복지기금 조성, 직원우대대출, 기능직원의 일반직 환원 요구 등 노조의 권익 찾기 목소리만 있을 뿐...</p> <p>하지만 이번 대전MBC에서는 서산축협 분쟁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협동조합</p> | <p>시사프로그램 제작에서 제작진이 가장 신경 쓰고 조심하는 부분이 양측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되는 것이다. 그리고, 인터뷰에 쓰인 부분은 사건이나 문제에 대한 양측의 의견을 담은 것으로 한쪽만의 주장을 부각시킬 경우 편파적으로 프로그램 방향이 흐를 수 있어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p> <p>지적하신 내용은 다시 프로그램을 살펴보다 공평하고 객관적인 방송제작에 참고하겠다.</p> | | ○ | |

| | | | | |
|-----------|---|---|----------|--|
| | <p>이 올바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조합원 교육을 통해 협동조합에 대한 주인의식을 갖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과 무자격 조합원을 정리하여 이해 당사자인 조합원들에 의해 협동조합이 운영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인터뷰를 전한 것은 서산축협 분쟁 속에 직접적 피해 당사자가 되는 조합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협동조합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 서산축협의 정상화를 바라는 지역조합원들에게 단비를 적셔주었다고 본다. 다만 아쉬웠던 점은 오프닝 영상으로 내보냈던 “조합을 위해서 활동한다면 그것이 법과 원칙을 벗어났다 하더라도 용납되는 분위기입니다.”라는 김희봉 전국축협노조 대전충남본부장의 인터뷰이다. 여기에서 인터뷰 내용의 의미는 조합장의 비리가 있더라도 그것이 조합을 위한 활동이었다면 법과 원칙을 벗어나도 괜찮다라는 의미였기에 이에 대한 지적과 부연 설명이 있었어야 한다. 자칫 잘못하면 지역 조합원들에게 법과 원칙을 벗어나도 조합을 위한 활동이라면 괜찮다는 메시지를 전달해 줄 수도 있다(장백기).</p> | | | |
| <p>보도</p> | <p>작년까지 녹조 현상의 심화로 이슈가 되던 정부의 4대강 사업이 ‘큰빛이끼벌레’라는 환경 문제의 대두로 대중에게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 4대강 사업은 시청자로부터 문제의식과 공감을 이끌어 내기에 좋은 논점이며, 토론의 주제로써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본다. 8월 10일 시사 광장에서는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 후의 금강의 변화’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쳤지만, 토론은 첨예하게 대립만하는 공방전으로 가는 듯 보였다. 토론자들은 서로의 의견과 이견에 대해 한 치의 물러섬도 없었고, 원활한 논의마저 유지되지 않았다. 타 발언자의 발언 중에 말허리를 자르고 반론을 하는가 하면, 다수의 토론자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언을 하여 시청자에게 원활한 논의 내용 전달에도 어려움을 주었을 것이라 본다. 다만 시청 중에 토론의 진행방향이 본 주제의 정치적 정책판단의 시비를 가리는 흑백논리식 논점으로 가지 않을까 라는 우려감을 가졌지만, 주제에 벗어나지 않고 ‘금강의 변화’라는 객관적인 사실만을 가지고서 토론내용을 전달했다는 것에 토론의 의의를 둘 수 있겠다(한찬희).</p> | <p>방송 시사토론이 절충과 합의의 결과를 도출해 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현안에 대한 주장이 대립될 때 그 목표의 가치를 끌어내기가 쉽지 않다. 특히 4대강 논란과 관련해서는 시행주체와 환경시민단체의 주장이 한치의 양보도 없기에 더욱 그렇다. 하지만 양쪽의 주장을 가감 없이 드러내기 위해 진행상 통제를 최소화함으로써 시청자가 합리적 판단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복잡한 갈등현안에 대해 국민적 이해와 합의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사토론이 단순한 주장 나열이 아니라 합의의 정신에 근접하도록 절충점을 찾아가도록 노력하겠다.</p> | <p>○</p> | |
| <p>교양</p> | <p>올해 초 ‘선행학습 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8월 8일 시사 플러스에서는 시행을 곧 앞두고 우려와 기대의 시선이 교차</p> | <p>선행학습금지법에 대한 <시사플러스>방송편은 일반고를 대상으로 중점 취재하였다. 제작진도 다양한 학교 특성에 대</p> | <p>○</p> | |

| | | | | | |
|----|---|--|---|--|--|
| | <p>된 ‘선행 학습 금지법’을 의제로 조명하였다. 학부모, 선생님, 학원, 학생, 교육부 등 다면적인 인물들을 취재로, 의제에 대한 다각적인 시야를 갖게 해주는 문제 접근방식이 좋았다. 인터뷰 내용 중 우리나라의 교육 문제를 타개 할 수 있는 요인이 선행 학습 금지법안 안에 국한 되어있는 것이 아니고, 사회적 인식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일반적인 시청자들도 이해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약간의 아쉬웠던 부분은, 법안의 규제에 예외적으로 될 수 있다는 특목고, 자율고 부분에서 시간을 할애하여 더 깊이 있는 설명을 부가 하여 시청자들의 견해의 폭을 보다 넓혀 주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았나 생각한다(한찬희).</p> | <p>한 부분도 고려하였지만, 다양한 범주의 여러 경우를 설명할 경우 제한된 시간 안에 너무 다양한 사례들이 등장하게 되어 시청자 이해도 측면에서 불리한 점이 많아지게 된다.</p> <p>보다 많은 사례를 소개하지 못한 부분은 제작진도 아쉬움을 느끼지만, 제도에 대한 이해와 다양한 의견을 수용하기 위한 선택이었음을 양해 바란다.</p> | | | |
| 기타 | <p>대전MBC 홈페이지 개선을 통해 인터넷을 통한 시청자들에 대한 정보 제공 및 다양한 의견 수렴이 더욱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시청자들과 소통하려는 노력을 통해 대전MBC의 이미지 제고 차원에서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송인덕).</p> | <p>홈페이지를 전면적으로 개편하였다. 방송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보다 편리하고 사용 목적에 적합하도록 수정하였다. 시청취자들의 의견을 보다 많이 듣기 위해 SNS 활용도 가능하게 해 놓았다.</p> | ○ | | |
| 보도 | <p>8월 21일(목) 뉴스데스크 ‘네트워크 충남’을 통해 천안뉴스센터가 아산시청 차량돌진 사건의 범인을 9시간만에 검거했다는 뉴스를 보도하는 가운데, 농가의 자연재해 보상 제도가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한 것이 사건의 주요 원인이라고 보도했는데, 대전MBC 권역 내 시청자들의 상당 부분이 농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인구인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불합리한 농어업 관련 정책들에 대한 후속 보도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송인덕).</p> | <p>세종을 비롯해 충남의 주시청층이 농민이 많은 만큼 농업 분야의 현실적인 문제점을 파헤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보도를 적극적으로 제작하겠다.</p> | ○ | | |
| 보도 | <p>8월 22일(금) 뉴스데스크에서 “세종 아파트 분양, 시험대 섰다”는 제목으로 보도된 세종시 2-2지구 아파트 분양 관련 뉴스는 지역 뉴스로서 다룬만한 내용임에 분명하지만, 영상자료 구성 및 인터뷰 대상자 선정과 관련하여 자칫 특정 업체의 홍보성 보도로 오해될 소지가 있다.구체적으로 특정 업체의 아파트 견본주택 장면과 분양업체 대표자의 인터뷰 내용은 홍보성이 있다고 보여진다(송인덕).</p> | <p>2-2블록에서 처음으로 분양을 시작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노출이 됐지만, 앞으로는 ‘홍보’라는 오해가 없도록 인터뷰와 화면 구성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다.</p> | ○ | | |
| 보도 | <p>8월 22일(금) 뉴스데스크의 ‘문화이야기’에서는 ①만화축제 ‘디쿠페스티벌’ 개막, ②</p> | <p>지역 내 문화 관련 소식을 다양하게 전달하기 위해 행사 내용 위주로 취합하</p> | ○ | | |

| | | | | | |
|-----------|--|---|---|--|--|
| | <p>‘자주독립의 꿈, 대한제국의 국새’ 특별전, ③문학작품 ‘메밀 꽃필 무렵, 운수 좋은 날, 봄봄’이 애니메이션 영화로 제작상영, ④피아니스트 윤숙 독주회 소식을 방송했다. 그러나 이들 4가지 각각의 공연 및 전시회 소식들이 순서대로 소개되는 가운데 자료화면 구성이나 아나운서의 멘트 또는 배경음악 등이 겹쳐져 시청자들에게 혼란을 초래하는 측면이 있었다. 하나의 소식이 전달된 후, 다음으로 새로운 소식이라는 구분이 될 수 있도록 형식적 구성 측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또한 개별 문화 이벤트들의 공연 장소와 기간 등을 시청자들이 보다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시각적 및 청각적 전달 방법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송인덕).</p> | <p>다보니, 보도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앞으로는 내용의 전달력을 높일 수 있도록 형식적인 부분과 음향 효과 부분에 대해 더욱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다.</p> | | | |
| <p>보도</p> | <p>MBC뉴스데스크 등 주요 TV뉴스의 서막을 여는 헤드라인 뉴스는 그 날의 주요 핵심 뉴스를 소개하는 단지 몇줄의 짧은 글이지만, 시청자들의 관심을 유도하는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제대로 전달을 해야한다. 헤드라인을 소개하는 앵커의 목소리가 시그널 뮤직에 파묻히는 바람에 그 뜻을 제대로 시청자들에게 전달되지 못하는 사례가 가끔씩 발생한다. 헤드라인 뉴스는 시청자들에게 온전히 들려져야 한다(김학선).</p> | <p>주요뉴스의 전달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음향 볼륨 조절 등 영상후반 작업을 정교하게 하겠다. 편집기자와 후속 대책을 마련하겠다.</p> | ○ | | |
| <p>기타</p> | <p>시내버스에 ‘100년 친구가 되겠습니다’ 광고 문구가 눈에 들어온다. 시내버스 광고판을 접한 시민들에게 색다르게 다가갔을 듯싶다, 창사 관련 특집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 한 달 정도 남았는데 매체를 통하여 대전MBC 50주년 특집 프로그램과 행사를 알려야겠다(김학선).</p> | <p>창사 50주년 홍보를 위해 시내버스에도 대전MBC 이미지 홍보 포스터를 부착했다. TV와 라디오에 집중적으로 창사 50주년 특집 행사와 프로그램 홍보에 매진하고 있다.</p> | ○ | | |
| <p>교양</p> | <p>생방송 아침이 좋다(8/20)를 모니터하였다. <가을 바람이 분다. ○○이 생각 난다>로 정한 시청자 참여 문자 메시지의 주제는 많은 시청자들에게 공감을 주는 적절한 내용이었다고 보여진다. 참여하는 시청자들의 사연에 ‘가을’을 함께 느끼고 옛 추억을 기억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한다. 다만 시청자들의 사연을 자막으로 소개할 때, 경직된 글씨체보다는 부드러운 글씨체를 선택한다면 시청자들에게 친근한 느낌을 줄 수 있을거라 생각된다(유덕순).</p> | <p>문자소개는 시청자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는 소통하는 코너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방송용으로 사용되는 글씨체는 화려하고 다양한 서체를 사용할 경우 내용을 이해하거나 전달하는데 있어 장애가 되는 경우가 많아 가급적 지양하고 있다. 또한 서체 사용의 경우 저작권과 관련된 부분이 있어, 보다 다양하게 서체를 활용하지 못하는 아쉬움을 제작진도 느끼고 있다. 상황에 적절한 서체 구사에 노력하겠다.</p> | ○ | | |

| | | | | |
|----|---|--|---|--|
| 교양 | <p>생방송 아침이 좋다(8/20) - 산사로 떠나는 힐링 여행-</p> <p>시청자들에게 분주하고 복잡한 일상을 떠나 통도사라는 산사 안에서 가질 수 있는 편안한 쉼을 전달하고자 하는 제작 의도일터인데 실제 화면 속 그림은 기대에 못미쳤다. 예를 들면 자막은 세상과 좀 떨어진 산사의 정적과 편안함을 쓰고 있고 리포터와 통도사를 소개하는 스님은 '시간이 멈췄네요' 또는 '현대인들에게 필요한 마음의 휴식 공간'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그래서 시청자는 고즈넉한 자연을 기대하고 있지만 계곡과 흐르는 물을 담은 화면의 곳곳에 알록달록한 관광객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 제목으로 삼았던 '힐링'은 좀 거리가 있어 보인다. 또한 리포터의 부정확한 발음과 가볍게 느껴지는 말투도 몰입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었다(유덕순).</p> | <p>현장의 화면을 제작의도에 맞게 포착하여 시청자들에게 전달하겠다. 프로그램에 투입하는 리포터의 발음과 제스처 등은 항상 체크를 한다. 좀 더 나은 자세로 프로그램에 임하도록 노력하겠다.</p> | ○ | |
| 교양 | <p>8월 8일에 방송된 시사플러스 <선행학습 금지법! 공교육 정상화로 가는 길> 편은 교육자의 입장에서 관심 있는 이슈이기도 했지만, 9월 12일 <선행학습 금지법안>의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우리의 교육을 반추해 볼 수 있는 시기적절한 주제였다.</p> <p>선행학습 실태에 대한 리포트와 교육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비정상적인 공교육의 현황과 이를 대처하기 위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의 취지와 의미를 파악할 수 있었다. 그리고 앵커가 언급한 것처럼 취재요청을 외면한 교육부의 견해를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선행학습 금지와 공교육 정상화의 상관관계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법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와 효과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정리해서 제시해 주었다. 아쉬운 점은 각계 혹은 이해당사자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논지를 좀 더 객관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한정된 그룹과 동일인(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단체, 입법국회의원, 선생님, 교육청 장학사, 특정교 교 학생)이 반복 등장하여 의견을 제시한 점이다. 또한 동일한 배경화면을 앵글만 바꿔 보여주고, 동일한 그래픽의 반복 사용은 어렵더라도 프로그램의 완성도를 위해 지양해야 한다(김형주).</p> | <p>주제에 대한 반론과 반론권 보장은 시사 프로그램에서의 핵심요서중 하나이다. 아쉽게 공직사회는 언론의 인터뷰 요청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 이러한 현상은 중앙부처나 지자체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사항이지만, 제작진은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내용상 균형된 시각을 위해 다양한 기법 등을 사용한다.</p> <p>지루하지 않게 프로그램 내용전개를 위해 보다 노력하겠다.</p> | ○ | |

